

Let's Security

정보보호 잘하는 기업들에게 상을 주자

정보보호에 대한 체계 및 활동현황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정보보호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정보보호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27일에 있었습니다. KT, 대한항공, 한국개인신용이 각각의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한 11개 기업이 이번 정보보호대상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정통부와 KISA 관계자는 물론, 수상 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던 정보보호대상 행사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죠.

글·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지난 2007년 12월 27일 정보통신부 중회의실에서는 정보보호를 열심히 하고 또 잘 하는 기업을 심사해 선정하는 제6회 '정보보호대상' 시상식이 거행됐습니다. 정보보호 우수 실천기업을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된 정보보호대상은 KISA를 비롯해 학계, 정보보호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측면의 심사를 거쳐 정보보호 체계 및 활동 현황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죠.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인터넷 분야 11개 기업을 포함해 총 38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KT, 한국개인신용, 대한항공이 인터넷, 금융, 제조/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이들 3개 기업 이외에도 인터파크 지마켓, 교보생명보험, 현대정보기술 등 총 11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구 분	비 고	기 업 명
대상 (정보통신부장관상, 3개 부문)	인터넷	주식회사 케이티
	금융	한국개인신용(주)
	제조/서비스	주식회사 대한항공
우수상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상, 3개 부문)	인터넷	주식회사 인터파크G마켓
	금융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제조/서비스	현대정보기술(주)
특별상 (후원기관장상, 5개 부문)	분야 관계없이 우수 업체 5개사	(주)케이아이엔엑스, (주)아라바이트천국, (주)한국암웨이, (주)정보보호기술, (주)씨엔에스테크놀로지

▲ 제6회 정보보호대상 부문별 수상 기업

정보보호 위한 CEO의 관심 가장 중요

정보보호대상은 민간 기업들 스스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정보보호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심사위원회가 현장심사를 포함해 2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쳐 정보보호 활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늘어나는 옹모기업과 기업 내 정착된 정보보호 체계 및 실천문화 덕분에 심사과정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보호대상 심사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6회 정보보호대상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염홍열 교수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대상에 참가한 기업들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와 지속적인 직원교육 등 정보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상 기업들의 경우에는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구체화돼 있었으며, 이런 요소들이 심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상 기업의 보안활동을 들여다보면 CEO의 관심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활동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정보보호대상에 참가하려는 기업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지요.

수상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KT의 경우 통신회사 최초로 개인정보 전문상담센터 운영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 개발, 전 사원 개인정보보호 e-Learning 교육 실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인적 구성·보호정책 등이 우수하고 최고 경영자의 정보보호 인식이 높아, 정보보호가 사내에서 생활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나 대한항공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준높은 정보보호 활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국개인신용은 크지 않은 기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 및 IT 서비스에 대한 모의훈련 실시,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대상을 수상한 배경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정보보호의 성패는 크기가 아닌 관심과 참여라는 얘기죠.

민간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계기

한편, 이번 정보보호대상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KT를 비롯해 일부 수상 기업들 중에는 이전 대회에서 수상을 경험한 기업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참가 기업들이 정보보호대상을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로 삼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특히 과거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에 집중했던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관심을 옮기면서 보다 다양하고 강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검증받으려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 해를 거듭해 오며, 정보보호대상은 단순한 행사의 의미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보호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보호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파해 다른 기업에게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보보호 수준강화를 위한 더 많은 사례들이 등장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보호대상에 대한 기업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좋겠네요. **S**